

문화

광주연극 '그 남자의 사정' 日 관객과 고민하다

〈事情〉

극단 '얼·아리' 샤프로 공연

'광주 연극, 일본 샤프로 무대에 서다.'

찬바람이 몰아치던 지난달 28일 일본 샤프로 콩카리노 극장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200석 규모의 민간극장으로 450여명의 기부자가 힘을 보태 문을 연 콩카리노 극장은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로 가득찼다. 관객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으며 정환성 주사부로 총영사 등도 참석했다.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일본 샤프로 콩카리노 극장 무대에 오른 극단 얼·아리의 '그 남자의 사정' 공연 모습. <훗카이도 문화재단 제공>

27일에 이어 이날 공연된 작품은 광주 극단 '얼·아리'의 '그 남자의 사정(事情)'. 광주연극협회(회장 최영화)와 훗카이도 문화재단(이사장 이소다 켄이치)의 연극 교류 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무대다. 극단 대표 양태훈씨가 직접 희곡을 쓰고 연출을 맡은 이번 연극은 광주에서 '납치'라는 제목으로 공연됐던 작품이다.

광주연극협-훗카이도 문화재단, 교류사업 일환

"사회적 문제·인간 관계 되짚은 작품 인상적"

단출하게 꾸며진 무대를 채워 놓은 건 주인공 남자 역을 맡은 정순기씨를 비롯해 정경아·정태성·김경숙씨 등 배우들의 연기였다.

연극협회와 훗카이도 문화재단의 교류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연극협회는 광주문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번갈아 가며 양국을 방문, 작품을 공연하기로 결정했고 첫해 샤프로 극단 'TPS'가 광주평화연극제에 초청되며 물꼬를 텄다.

이후해 푸른연극마을이 샤프로 공연을 진행하면서 광주 연극이 처음 일본 무대를 밟았고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올해 6번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그 남자의 사정'은 기존 일본 공연작인 푸른연극마을의 '아랑별곡', 극단 Y의 '다시래기' 등이 한국적 느낌이 강했던 데 반해 현대적 색채가 강

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한국형' 작품은 이국적인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현대극의 경우 일본어 자막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완벽하게 관객들을 장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광주 연극'의 도전이었고,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겼다.

또 지금까지 두차례는 샤프로 극장 제 행사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배우 스케줄로 인해 단독 공연만 진행, 일본 극단들과 교류가 다소 미흡했던 점은 아쉬웠다.

재일교포 김시강씨는 "한국 연극을 몇차례 봤지만 모두 전통적인 작품이었고, 현대적 감각의 작품이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전환이 빠르고 스팟드감이 있어 어렵기는 했지만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연 후에는 훗카이도 문화재단 관계자와 지난해 광주를 다녀간 사카에다 요시코씨 등 일본 배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류회가 열렸으며 지역 언론들의 취재도 이어졌다. 또 최영화 광주연극협회 회장과 양태훈 연출가는 29일 일본 훗카이도 교육대학을 방문, 광주와 광주연극을 주제로 대화를 진행했다.

1년에 30편 정도를 관람한다는 연극 애호가인 이시야 타다오씨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극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일본도 안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들도 작품에 드러나 있어 흥미로웠다"며 "특히 배우들의 에너지와 발성,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샤프로 국제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요시히 교수는 "일본에서는 사회적인 테마를 소재로 한 연극이 잘 공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문제와 인간 관계를 되짚은 이번 작품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연 후에는 훗카이도 문화재단 관계자와 지난해 광주를 다녀간 사카에다 요시코씨 등 일본 배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류회가 열렸으며 지역 언론들의 취재도 이어졌다. 또 최영화 광주연극협회 회장과 양태훈 연출가는 29일 일본 훗카이도 교육대학을 방문, 광주와 광주연극을 주제로 대화를 진행했다.

그만큼 인상깊은 작품에 대한 솔직한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역사 이후: 사진 작가로서의 알렉상' "개념적인 작품을 전시하는 것

'전남도문화상' 후보자 추천

전남도는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전남도문화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전남도문화상 시상식은 문화·예술·학술 등 3개 분야로 나눠 전체적으로 10명 이내에서 시상한다.

수상 후보자는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이며, 5일 현재 3년 이상 도내에 계속해 거주한 사람으로 분야별로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접수하면 된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참여 문경원·전준호씨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수상

제 9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로 '눈'(NOON) 예술상 수상자인 문경원·전준호씨가 '올해의 작가상'(Korea Artist Prize)도 거머쥐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5일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올해의 작가상 2012년도 수상자로 문경원·전준호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술관측은 "문경원·전준호의 출

품작 '공통의 진술'(Voice of Metanoia - 두 개의 시선)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보편적 주제에 대한 진지한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국내외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제 13회 카셀 도큐멘타에 출품했던 'News from Nowhere'의 후속 작업이기도 하다.



전준호(사진 왼쪽)·문경원씨.

한편, 제 9회 광주비엔날레에는 영화배우 이정재·임수정씨도 개런티로 출연하면서 화제가 됐던 작품, '세상의 저편'(EL FIN DEL MUNDO)을 선보이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비엔날레 찾은 후미오 난조 日 모리 미술관장

"개념미술에서 시각적 즐거움까지

작품 다양하지만 대중과 더 가까워져야"

"훌륭한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문화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5일 요시코 모리 모리미술관 이사장과 광주비엔날레 관람을 위해 한국을 찾은 후미오 난조 일본 모리미술관장은 회색빛 도시에 문화적 부가가치를 입힐 수 있는 문화마인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부동산 기업인 모리빌딩주식회사가 매년 수억엔을 미술관 운영에 쏟아붓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내년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미술관 심포지엄도 '문화, 도시와 크리에이티브'라는 주제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비엔날레를 둘러본 뒤 "6명의 공동 감독들의 다른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전시였다"며 "개념 미술에서부터 시각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품 등을 다양하게 전시, 설치했다"고 평했다.

난조 관장은 지난 2006년부터 모리미술관을 이끌어왔으며, 1997년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커미셔너, 영국 터너상 심사위원과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심사위원 등을 지냈다.

그만큼 인상깊은 작품에 대한 솔직한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역사 이후: 사진 작가로서의 알렉상



드르 코제브'라는 작품을 내놓은 보리스 그로이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아랍세계 출신 단원들로 구성된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 독수리 머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랍에미리트의 군사시설을 항공 촬영한 작품 '온 에어'를 내놓은 로랑 그라스 등을 모리미술관에 소개해보고 싶은 작가들로 꼽았다.

지역 작가들로 이뤄진 비빔밥팀이 내놓은 '숲, 숲, 숲 그리고 집'이라는 작품도 사진을 찍으며 관심을 보였다.

"개념적인 작품을 전시하는 것

도 좋지만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다이내믹한 작품들이 조금 더 많았다면 관객들에게 좋지 않았을 거 같다"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미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관객을 입장에서 작품을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는 다소 어렵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현대미술의 대중화를 위한 모리미술관의 다양한 시도들을 설명했다.

모리미술관의 경우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해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가 하면, 오디오 가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작품 설명·해설, 관람객을 배려한 공간 디자인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곁들였다.

한편, 일본 현대미술관인 모리미술관은 지난 2003년 일본의 부동산 재벌 모리 미노루가 소비자분주의 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도쿄 롯폰기에 건립한 54층짜리(250m) 모리타워의 52층과 53층에 꾸민 현대미술관으로, '하늘과 가장 가까운' 미술관으로 불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천경자 전시실 이번엔 누수피해

고흥군 허술한 전시관 관리 비판... 작품 납포미술관으로 옮겨

고흥에 조성된 천경자 전시실에 물이 새면서 작품을 긴급히 옮기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기증자의 반환 요구가 나올 정도로 작품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전시실 누수 피해까지 발생, 고흥군의 부실한 전시관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1일 오전 고흥종합문화회관 내 천경자 전시실(149㎡) 옥상 물탱크가 파손돼 전시실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등 누수 피해를 입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999년 설치된 물탱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빗어진 것으로, 전시실(1층)과 사무실(2층) 천장에 물이 흘러내렸고 한때 2층 사무실은 물바다가 됐다는 것.

고흥군은 "사고가 발생한 뒤 긴급히 작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보수 공사를 거쳐 다시 전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경자 전시실은 지난 2007년 11월 개관한 뒤 천 화백이 기증한 드로잉(55점)과 판화(11점) 등 66점의 작품을 전시해왔다. 현재 천 화백 작품은 인근 납포미술관 수장고로 옮겨 보관중이다.

고흥군의 문화 행정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국내 대표적 여성화가의 작품을 소장하고도 납포 문화 유산으로 제대로 육성하는 커닝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작품 반환 요구를 받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전시실 천장 누수 등 허술한 전시관 관리 시스템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다.

고흥군은 지난 3월 천 화백 작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서류 미비 등을 내세워 여태껏 작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한국미술협회도 반환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www.kjhr.com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